

# ‘불청지우’ 정신 10년째 실천 노력

不請之友

홍법사 10월 20일  
창건 10주년 개산문화대제 개최

대만과 전세계에 불법의 화려한 꽃을 피운 성운대사에게 포교 비결이 무엇이나는 질문에 ‘불청지우(不請之友, 자비로운 품성과 보현행원 정신)를 묵묵히 실천하고자 했을 뿐’이라는 짧막한 답변이 돌아왔다. 짧지만 어떤 자세한 설명들도 이보다 자세하게 이해시키기 어려울 것이다. 인간불교를 표방하며 사람에 대한 진심어린 불교를 실천하고 있는 대만에 불광산사가 있다면 그에 비하면 아직은 씨앗에 불과하지만 한국에는 부산 홍법사가 있다.



10월20일 경내에서 진행된 다문화페스티벌에서 심산스님이 모범 다문화가정에게 표창을 하는 모습

## 가건물서 시작해 대가람으로 성장 도심 휴식공간으로도 사랑받아

라진다고 한다. 우리가 지금의 고정관념과 정체성을 깨물어 우리불자들도 함께 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0년 전, 1만5천여 평의 아름다운 농원에 작은 슬레이트 지붕을 얹힌 가건물모든을 연 홍법사는 어느덧 눈부신 대가람으로 성장했다. 전통과 현대적인 건축이 어우러진 원형법당과 그 상층부에는 국내 최대의 아미타 좌불상이 자리하고 있다. 또한 그림 같은 푸른 잔디와 아름다운 수목들이 즐비해 도심의 휴식공간으로 더할 나위 없어 많은 시민들이 즐겨 찾는 도량이 되었다. 홍법사에는 불청지우의 정신이 도량 구

석구석 배어 있다. 전각들의 조성 자체에 더 큰 의미가 있는 주지 심산 스님의 말처럼 건축은 건축이 아니고, 수목은 수목이 아니다. 어려움을 함께 나누려는 마음이 고스란히 배어있고, 현대인들의 고통을 더는 심터로 어려운 이웃의 벗이 되고자 하는 진심이 부산의 불심을 움직였다 할 것이다. 국화향 만발한 시월, 홍법사 경내엔 국화꽃이 천지고, 힘든 이의 벗이 되려는 사람들로 가득하다. 지글거리는 전 부처는 소리, 피부색이 다른 사람들이 어우러져 내는 정겨운 미소가 넘친다. 사람을 위한 진심, 진정어린 벗이 되려는 홍법사의 10년은 불사를 위한 불사가 아니라 바로 사람을 향한 따뜻한 마음과 정성의 불사였다 할 것이다. 박경수 부산지사장

# 사찰의 흔적 소리문화로 알려

진각종, 폐사지 음악회 19일 열려

소실되어 사라진 폐사지의 실태와 불교 문화의 소중함을 알리는 음악회가 열렸다. 진각종 폐사지음악회가 10월 19일 대구 두류공원 내 코오롱 야외음악당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는 진각종 교육원장 경당정사와 대구교구청장 해명정사, 동화사 문화국장 연암 스님 등 2천여명이 참석했다.



진각종이 주최한 ‘폐사지 음악회’가 10월 19일 대구 두류공원에서 열렸다.

음악회 공연에는 풍물단과 팡패라, 댄스, 퓨전국악 등 다양한 공연을 선보였으며 인기초청 가수 안치환의 무대도 마련됐다. 진각종 통리원장 회정 정사는 “사찰의 흔적을 소리문화로 표현하는 폐사지 음악회이며 부처님의 가르침에 공감하는 법문의 자리”라며 메시지를 전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진각종 전국신도

회 조직인 총금강회 대구지부(회장 김창식)는 ‘금강복지회’ 발족을 기념한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먹거리, 불거리, 체험, 판매마당의 바자회를 열었다. 진각종 폐사지음악회는 문화복지연대

손문철 대구지사장

## 대일불교조계종 수성구 전장사 개원

대일불교조계종은 10월 19일 대구 수성구에 전장사(주지 청진)를 개원했다. 사부대중 100여명이 참여한 이날 행사는 삼존불 부처님 점안 법회에 이어 티벳 라왕토펠 립포체 스님을 초청 법회를 열었다. 특히 이 법회는 한국국제문화교류협회 남광일 회장의 후원으로 이루어졌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10월 19일 열린 전장사 개원식 모습.

## 삼광사신도회 창립 44주년 기념법회

11월 1일 지관전서 개최...2만여명 참석 예정

부산 삼광사(주지 무원)는 11월 1일 오전10시 지관전서에서 신도회 창립44주년 기념법회를 개최한다. 이날 행사에는 장도정 총무원장 스님을 비롯 부산 주요 기관장과 불자 2만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삼광사신도회는 17개 지회와 17개 수행단체, 금강불교대학, 삼광교육대학, 삼광다도대학 등의 산하교육기관과 힐링광장을 비롯한 대사회봉사단체에 이르기까지 36만의 신도조직으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한편, 삼광사청년회는 10월24일부터 11월10일까지 지역민들을 위한 제1회 국화분재 전시회를 삼광사 경내에서 개최하고 있다. 박경수 부산지사장

### 캠페인

렌즈속 현장 - 도량을 도량답게 가꾸자

## 산사의 샘물 청정성 유지돼야

역사가 오래된 사찰치고 명당이 아닌 곳에 자리를 정했던 사찰은 많지 않다. 특히 사찰의 입지가 산으로 옮겨가고 스님들이 풍수지리의 원리를 적용하면서부터는 더욱 더 좋은 자리에 사찰이 지어지게 된다. 어쩌면 그렇게 물 좋고, 그윽한 곳을 찾아서 절을 지었는지 신기할 따름이다. 물이 좋다는 것은 일상생활에 사용할 물이 충분하다는 뜻도 있지만 마실 수 있는 물이 좋다는 뜻이 더 강하다. 예로부터 절이 자리를 잡은 곳에는 약수가 많았는데, 절을 짓고 보니 약수가 나온 것이 아니라 약수가 있는 곳을 찾아 절을 지었던 것이 분명하다. 몇 해 전 조선중앙통신의 보도를 보면, 강원도 고산군 설봉리에 있는 석왕사(釋

王寺) 약수가 만성소화기질환 및 간염치료에 특효가 있으며, 이 약수에는 유리탄산과 나트륨이온, 칼슘이온이 들어 있고 철이나 동 성분도 풍부히 함유되어 있다고 전했다. 북한에서도 이렇게 좋은 약수는 그냥 두지 않고 상품화하여 소비자에게 공급하고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 사찰에는 아주 오래전부터 신이한 효험을 보인 약수가 많았다. 그중에서도 경주 석굴암, 장흥 보림사, 고성 육천사, 경주 기림사, 하동 쌍계사, 고성 건봉사, 구례 천은사, 강화 정수사, 동두천 자재암 등이 대표적이다. 석굴암 약수는 요내정에서 샘솟는 것으로 <삼국유사>에 이 약수에 대한 기사가 있을 정도이다. 그렇지만 지금은 요내정

도, 약수도 찾아볼 수가 없다. 우리나라 사찰에 그렇게 많은 샘물 가운데서 물의 청정성이나 수량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곳은 이제 찾아보기가 어렵게 되었다. 대부분의 경우 수원이 훼손되거나 수맥이 단절되면서 수질이 오염되기도 하고 물이 말라 나오지 않게 되었기 때문이다. 물은 한번 오염되면 다시는 원상을 회복하기 어렵고, 수맥은 한번 끊어지면 이미 그 물은 다른 곳으로 흐르게 된다. 절에서조차 시중에서 판매하는 생수를 사 먹는다면 이것은 사찰의 청정성에 문제가 있다는 말과 다르지 않다. 사찰의 샘물이 오염되면 사찰만큼은 아직도 청정성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을 것으로 믿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실망시키게 된다. 그러나 점차 더 큰 문제는 사찰의 샘물은 사찰의 청정성을 측정하는 지표가 될 수 있으므로 사찰의 샘물에 문제가 생긴다는 것은 곧 우리나라 사찰의 환경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홍광표(동국대 조경학과 교수, 사찰조경연구소장)



사찰의 샘물은 사찰의 청정성을 측정하는 지표다. 오염되어 먹을 수 없게 된 오래된 샘물. 사진은 경상북도 비사찰에 있는 샘물

## 한국불교의 정통 맥 마곡사 화원에서 전래 전통기법 그대로!!!

# 전통 ‘조왕탱화’ ‘반야용선’

### 조왕탱화

부양의 신인 조왕신(부역을 관장하는 신)을 묘사한 불화. 사찰의 조왕단(竈王壇)에 봉안된다. 신중탱화의 일종이며, 조왕신상은 우리나라 재래의 민간신앙이다. 불교에서는 배척하기 보다는 포용하고 정화하여 나가는 방법을 택한다. 불교에서는 황신(荒神)이라고도 하며, 우리나라에서는 조왕신, 중국은 염제(炎帝), 일본은 가마도신, 모두 불을 다룬다는 공통점이 있다. 이 탱화에는 보통 조왕대신을 중심으로 좌측에 담자역사(擔紫力士) 우측 조식취모(造食炊母)가 그려진다.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조왕단에 탱화 대신 '南無 竈王大神(나무조왕대신)'이라는 글자를 봉안한다. 조왕은 호법선신중(護法善神衆)의 하나로 인사(人事)를 검찰하고 선악을 분명히 가리는 신으로서 참여한다. 그러나 조왕은 다시 불교적으로 정화된 뒤 산신, 용왕, 칠성들처럼 독립한다.

- 크기 : 가로 61cm × 세로 91,5cm
- 재료 : 천연면포, 순금 99%(평금), 안료, 가금(금니)
- 형태 : 가리개형, 괘불형

### 반야용선

어지러운 세상을 넘어 피안의 극락정도에 갈 때 탄다는 배를 말한다. 반야(般若)란 모든 미혹(迷惑)을 끊고 진정한 깨달음을 얻는 힘이나 모든 법을 통달하여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마음의 작용을 뜻한다. 반야용선도는 망자를 위해 걸었던 그림으로, 그림에는 보통 좌로부터 극락의 주인인 아미타부처, 극락으로 인도하는 깃발을 든 인로왕보살, 반야용선과 망자가 표현되며 슬픔에 젖은 유가족이 그려지기도 한다. 즉 반야용선이 그려진 것은 망자가 아미타부처가 계시는 서방 극락정도에 왕생(往生)하기를 염원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 크기 : 가로 90cm × 세로 130cm
- 재료 : 천연면포, 순금 99%(평금), 안료, 가금(금니)
- 형태 : 가리개형, 괘불형



조왕탱화



반야용선

**한 탱화 수강 신청안내**

불묘의 도움을 받아 한 탱화 조성 과정(1.출초 2.배접 3.아교 포수 4.도채 5.바림 6.문양 7.금니 및 황선꽃침 8.금박붙이기 9.상호 10.틀 신기 11.발미)을 통해 탱화의 기초와 기능을 함께 배우면서 완성도 높은 예배용 탱화의 완성이 목표

- 모집분야 : 한 탱화과, 기초기반(도안)과, 교육 민화(단청)과
- 모집인원 : 서울(한 탱화과 20명 / 교육 민화 단청과 20명), 경주(한 탱화과 10명 / 기초기반 도안과 10명), 부산(한 탱화과 10명)
- 교육장소 : 서울 - 양천구 목동 대한민국예술인센터 9층 한국전통채색학교, 경주 - 경주시 내남면 이조리 1008-16 한국전통채색학교, 부산 - 진구 연지도 부산시민공원 인근 한국전통채색학교
- 신청방법 : 전화접수, 방문접수, 이메일 접수
- 개 강 : 2013년 10월 16일 (각 지역 별도 개강)
- 교육일정 : 2013년 10월 16일 - 2014년 3월 16일 (5개월)

**성유불화원 금어 조성철 합장**  
문의 051)332-0045 / 010-9216-0988